

“無心, 대행 선사 관법수행·실천행 근간”

정운 스님,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서 주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행어록 속 무심 사상 연원들
금강경 등 대승경전 통해 조명
“무한한 힘을 가진 ‘主人空’에
수행·실천 무심하게 작용 강조”

첫 발표회… 연 4회 진행 예정
원효 오도처 조명 연구도 눈길

대행 선사(1927~2012)의 수행과 보살행에 나타난 무심(無心)을 대승불교 사상을 통해 조명한 논문이 발표됐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은 9월 14일 (재)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원장 이평래)이 안양 본원에서 개최한 제1회 계절발표회에서 ‘대행 어록에 나타난 무심사상’을 발표하고 대행선에 내포된 무심사상을 조명했다.

선관(禪觀)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사상은 ‘무심’임을 강조한 정운 스님은 대행선에 나타난 무심 사상의 연원을 〈금강경〉·〈유마경〉 등 대승경전에서 찾았다.



스님에 따르면 〈금강경〉에서는 번뇌를 여읜 자리인 보리심·무주심·청정심 등을 깨달음의 경지로 보았으며, 특히 무주의 청정심의 경지는 본래 성불된 본각의 경지라고 주장했다. 〈유마경〉에서도 본래성불을 나타내는 용어로 해탈·열반·보리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열반경〉의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은 깨달음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정운 스님은 “불성과 본각, 본래성불은 대행선의 근간”이라면서 “이는 중국 초기 선종 성립 무렵, 선사들의 사상적 근거이기 때문에 대행 선사도 역대 선사들과 동일 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대행 선사가 강조한 믿고 맡김·관법·수행차제·보살행·일상 등에서의 무심을 선사의 어록을 통해 살폈다.

스님은 대행 선사가 밝힌 ‘주인공(主人空)에 대한 철저한 믿음’의 경우 〈대승기신론〉서 강조한 신심 등과 동일하다고 봤으며, 일체를 맡겼음에도 수행이 안 되는 것은 ‘아상’과 ‘아만’ 때문임을 지적했다. “대행 선사는 주인공에게 맡겨놓았다면, 그 다음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지켜보라고 했다”고 밝힌 정운 스님은 “이는 자신이 ‘믿고 맡긴다’는 관념도 없이 주인공에 믿고 맡기며 관념조차 두지 않은 무심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믿고 맡긴 뒤에 주인공에 대해 지켜보는 관(觀)의 단계에서도 대행 선사는 무심을 강조한다. 아집과 아상이 없는 경지가 바로 무심의 경지”라며 “이는 〈금강경〉에서 이상(離相, 모든 차별상을 떠난 열반의 모습)의 경지가 적멸세계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운 스님은 대행 선사가 제시했던 공생(共生)·공심(共心)·공용(共用)·공체(共體)·공식(共食)의 오공(五共)사상 안에는 무심의 보살행이 담겨 있음을 주장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관념이나 집착이 없는 불이(不二)적 무심의 삶을 대행 선사가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운 스님은 “대행 선사는 무한한 힘을 가진 주인공에 수행과 실천행을 무심하게 작용할 것을 강조한다”면서 “수행차제에 있어서도 그 어떤 경계에서도 자심(自心)을 무심으로 돌려놓으라고 했고, 보살행에서도 욕심과 집착을 비울 것을 선사는 대중에게 가르쳤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회에서는 김경집 진각대학 교수가 ‘원효의 구법행로와 오도처에 대한 고찰’을 통해 원효의 오도처가 현재의 천안시 직산읍임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관련기사 B6〉

연구자들의 논문발표에 이어 서영일 한백문화연구원장·고영섭 동국대 교수·황금연 동국대 교수·이상호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의 논평과 청중들이 참여하는 토론 등이 이어졌다.

한편, 대행선연구원이 새롭게 마련한 ‘계절발표회’는 전문연구자를 초청해 대행선과 불교학 전반 관련 연구를 발표하는 학술행사로 연 4회 개최된다.

처음으로 열린 이날 계절발표회에는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을 비롯해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 포항지원장 혜문 스님, 목포지원장 혜당 스님, 문경지원장 청무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발표자 스님과 교수님들에게 대행 선사의 사상과 원효 성사의 사상이 일맥상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오늘 발표를 통해 대행 선사의 가르침, 원효 성사의 사상이 우리 마음 속에 깊이 물들고 모두가 한마음의 덕화와 공덕으로 활짝 피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불교출판협, 제15회 불교출판문화상 공고

10월 1~8일 접수, 11월 발표

불교출판문화협회가 제15회 불교출판문화상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 협회에 따르면 접수 가능한 도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 기간에 국내서 초판 발행된 불교관련 서적으로, 불교를 주제로 하거나 소재로 한 모든 분야에 해당한다. 선정 종수는 올해의 불서 10종 및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1종, 우수상 2종이다.

대상에는 1000만원, 우수상에는 각 4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출판사와 저자가 공동 수상한다. 나머지 선정도서 및 번역상에는 각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결과는 11월 말 개별통지한다.

신청기간은 10월 1일부터 8일까지, 기본 서지정보와 개요를 자유 양식 500자 이내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처는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운주사 내 불교출판문화협회다. (02)3672-7181 윤호섭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 완료

중선위, 19일까지 접수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됐다.

조계종 중앙선관위원회(위원장 세영)은 9월 19일 오후 5시까지 17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후보자 접수를 마무리했다.

교구·직능대표·비구니 부문에 걸쳐 총 117명이 입후보를 마쳤다. 부문별로는 교구대표는 76명, 직능대표는 31명, 비구니는 10명이 입후보했다.

입후보 현황을 살펴보면 교구대표 중앙종회의원 선출이 경선 없이 이뤄지는 곳은 신흥사·직지사·불국사·금산사·화엄사 등 7곳이다.

가장 많이 후보자가 입후보된 곳은 범어사로 총 6명의 스님들이 후보로 나왔다. 5명의 후보가 경합을 펼친 곳은 3곳으로, 직할교구·용주사·해인사다.

또한, 현재 공권정지 10년·법계강등 징계를 받은 영담 스님도 쌍계사 중앙종회의원으로 입후보했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The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다 ㉔

최정순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울산지부 간사

“호스피스는 불교 알리는 숭고한 일”



사진 앞열 첫번째가 최정순 씨.

“호스피스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요양원에서였어요. 한참을 돌보던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 끝까지 지켜주고자 이 길에 나서게 됐습니다.”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울산지부 간사 최정순 씨(관음행, 61세)는 오랫동안 어르신들을 돌봐왔다. 2004년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로 어르신들을 돌보던 그녀는 2013년 호스피스 활동에 나섰다.

그녀는 2013년 마하보디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자재병원 봉사활동을 하다 2014년부터 울산대학병원에 호스피스 활동가로 임하고 있다.

“병원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요. 그중에서도 불교 호스피스 봉사자들

요양원서 임종봉사 발심
환자 광명진언 외울때 보람

은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잖아요? 마음을 함께 편하게 해드리면 제 마음 또한 편안해집니다. 숭고한 일이죠.”

그녀는 처음 병원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호스피스를 권하러 환자들에게 가면 기독교인으로 보고 불자들이 기피했기 때문이다.

“워낙에 이쪽이 기독교가 먼저 나선 분야예요. 울산대학병원에도 가톨릭 원목실은 있는데 불교법당은 없었어요. 불교 환자들이 개종도 많이하고, 불자임에도 임종시에는 가톨릭과 개신교 종교의식을 하곤 했죠. 그래서 ‘종교의식을 해드릴까요’라고 물어보면 의례히 기독교 의식인지 알고 피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녀는 하나씩 불교의 활동을 알려가는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녀는 한 임종 직전가 환자를 몸을 씻을 때 진언을 외워주며 임종맞이를 도운 것이 기억에 가장 남는다고 했다.

“보통 환자들과 가족들이 임종 직전에는 그렇게 씻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환자분께서 요청하셨죠. 씻겨드리며 광명진언을 외우는데 좌탈입망처럼 별세하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녀는 호스피스 봉사를 하며 생사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래서 가족들의 임종 또한 마음 편안하게 배웅할 수 있었다고 했다.

“지금은 몸이 건강치 않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만약 건강이 안 된다면 머리 감겨주고 발마사지 해주고, 이불빨래를 하는 등 육체적인 봉사는 힘들지만 법당에서 상담하고 불교를 알리는 작은 일이라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말기질환 환자 및 가족들의 생명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불교 호스피스 단체로서 2009년 창립됐다. 각 지역·지부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총괄하며 조계종 승려연수 일환으로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를 모집 중이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승려연수 30점 인증

①임상과 수행의 만남 ②환자의 심리와 욕구 ③영적 대화기법 ④죽음 현상들에 대한 직관 ⑤임종간호와 영적돌봄의 실제 ⑥불교의 생사관과 정토신앙 ⑦불교적 임종의식과 입관의식 ⑧임종시점에서 西歸直指의 방법론

- **교 육 비** | 25만원(법납 10년 미만 및 학인스님 5만원 감면)
- **접수문의** | 052)255-8522, 8524, 8530 / www.kbha.kr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8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 집
어학단기반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9월 28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 http://www.njutcm.co.kr